

2022. 3

해외 자원순환 정보

OVERSEAS RESOURCE
CIRCULATION INFORMATION



한국폐기물협회

1. 폐기물 자원순환 법 · 정책

[기획연구팀]

① 북미의 대학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프로그램, 'Campus Race to Zero Waste'

- Campus Race to Zero Waste(이하, CR2ZW)는 2001년부터 개최한 대학 간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대회로, 미국 국립 야생 동물 연맹(National Wildlife Federation)이 관리하고, 비영리조직 RecycleMania, Inc.가 주관하고 있음
 - 2001년, 오하이오 및 마이애미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재활용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존 스포츠 경쟁을 활용하며 RecycleMania라는 토너먼트를 시작
 - 이후 참여학교가 추가되며 비공식적으로 성장하다가 2004년 미국 EPA의 프로그램과 제휴하며 공식 웹사이트(recyclemania.org)를 개설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 관리 지원을 제공하게 됨
 - 2001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걸쳐 1,000개 이상의 대학교가 참여했으며, 2020년에 Campus Race to Zero Waste로 명칭 변경
- CR2ZW는 폐기물 제로, 전환, 식품유기물, 1인당 재활용 4개로 구분하여 8주 동안 진행되는 주요 경쟁부문과 농구경기 챌린지, 전자제품 재활용, 단일건물 챌린지, 사례연구 등의 특별부문으로 진행



Campus Race to Zero Waste 웹사이트

	구분	내용
주요경쟁 부문	폐기물제로	폐기물 감량 활동 및 제도, 교육
	전환	재활용품+음식물+일반쓰레기 무게 중 재활용품과 식품유기물의 무게 %
	식품유기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량
	1인당 재활용	캠퍼스인구 1인당 재활용품 무게
특별부문	농구경기 챌린지	교내 농구경기 기간동안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량
	전자제품 재활용	교내 및 교외 수집 전자제품의 재활용량
	단일건물 챌린지	교내 지정 건물의 1개월동안의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사례연구	교육 및 인식캠페인, 폐기물 감량, 음식물쓰레기 감량, 폐기물 감량 노력

- 학교의 규모 및 폐기물 관련 목표, 폐기물 데이터 관리 능력에 따라 학교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한 학교는 웹사이트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시되고 전자배지*를 수여받음



*프로그램의 폐기물 최소화 목적을 반영하고, 학교의 수상내역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상위학교에 물리적 상을 수여하는 방식에서 전자배지로 변경

- 2021년 개최결과, 200개 이상의 대학교가 참여하여 11,703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했고, 2억3,0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가 매립되는 것을 방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30,669톤을 저감할 수 있었음
- 2022년 1월 31일부터 3월 26일까지 CR2ZW 2022가 개최되며, 4월 최종 결과 게시 예정
- 학교는 CR2ZW에 참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AASHE STARS(Campus Engagement)** 및 대통령의 기후공약에 대한 크레딧 획득이 가능함
 - * 홈페이지 내 과거 대회결과에서 각 부문 상위학교의 실적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관련 사례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 지속가능성 추적평가시스템(The Sustainability Tracking, Assessment & Rating System™, STARS): 대학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보고 프레임워크를 말함

자료: Campus Race to Zero Waste 홈페이지(recyclemania.org)

② 일본,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과 기후변화 문제, 해외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등의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에 관한 포괄적인 자원순환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일본은 2019년 5월, 3R+Renewable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범부처 ‘플라스틱 자원 순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플라스틱 제품 설계에서 폐기물 처리까지 관련된 모든 주체의 플라스틱 자원순환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21.6),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구분	명칭
법률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정령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
성령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기초 설계 인증 및 지정 조사기관에 대한 명령
	특정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사업자의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사용 합리화에 의한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의 배출 억제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 성령
	플라스틱 사용 제품 산업 폐기물 등의 배출 억제 및 재자원화 등의 촉진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 명령
	분리수거물의 기준과 재상품화, 폐 플라스틱 사용제품 및 플라스틱 사용제품 산업 폐기물 등의 재자원화에 필요한 행위의 위탁기준에 관한 성령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 등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고시	플라스틱 사용 제품 설계 지침

- 그동안 플라스틱 용기포장은 「용기포장에 대한分別수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리수거 및 재활용하고 있는 반면,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처리되어 왔음. 이에 플라스틱 사용 제품 폐기물에 대해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여 플라스틱 자원 수집량 확대를 목표로 함

-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① 제조단계

- 제조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친환경설계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구조 마련
- 인정제품은 국가에서 솔선수범하여 조달하는 동시에 재활용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지원

② 판매단계

- 일회용 플라스틱 제공 사업자가 대응해야 할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치함

③ 배출·회수·재활용단계

- (시정촌의分別수집·재활용 촉진)플라스틱 사용제품 폐기물의分別수집 및 재활용을 위하여 용기포장재재활용법의 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촌은 재활용사업자와 연계하여 재활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제조·판매 사업자 등에 의한 회수)제조·판매 사업자 등이 제품 등을 회수·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무대신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업 허가가 불필요함
- (배출자의 배출 억제 및 재활용)배출자가 배출 억제나 재활용 등 대응해야 할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치함. 배출사업자 등은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무대신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업 허가가 불필요함

자료: 플라스틱 자원순환 웹사이트 <https://plastic-circulation.env.go.jp/>

2.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청소행정지원팀]

① 전기동력 수집 · 운반 차량

- 차량운행 및 적재장치, 빈리프트 등 특장 모두 전기로 구동되는 수집 · 운반차량
 - 영국 데니스이글, 스웨덴 스카니아 등에서 제작



<데니스이글 전기 수집 · 운반차>

- (장점) 유지비용이 저렴하며,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없음
 -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관련 정부정책방향에 적합
 - 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작업자 건강, 대기환경 등에 영향 없음
 - DPF 필터, 엔진오일 등 교체가 불필요하여 소모품 등 유지비용 절감
- (단점) 전기차 충전기, 차고지 등 인프라 설치 필요
 - 전기차 충전기와 충전장소 설치가 필요하여 높은 초기비용 소요
- 해외 다양한 도시에서 전기 수집 · 운반차량에 투자하거나 도입하고 있음
 - 영국 런던(London) 2021년 3월 4일 5대 도입
 - 영국 포이스(Powys) 2021년 4월 22일 1대 도입
 - 미국 뉴욕(New york) 2021년 6월 6일 7대 도입
 -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 2022년 5월 15대 도입 예정

출처 : <https://www.dennis-eagle.co.uk/products/zero-emissions-ecollect/>

② 유럽, 수소동력 수집·운반차량 보급

-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수소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 차량 개발·보급에 노력 집중
- 헥터 프로젝트(HECTOR-Hydrogen Waste Collection Vehicles in North Europe)는 연료전지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개발, 배치하는 협력 프로젝트임



<수소동력 수집·운반 차량>

- 현재 5개국 7개 도시에 수소 동력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영국 애버딘(Aberdeen), 네덜란드 흐로닝언(Groningen), 아른햄(Arnhem), 독일 뒤스부르크(Duisburg), 헤르텐(Herten), 프랑스 투렌(Touraine), 벨기에 브뤼셀(Brussels)
-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400톤이며, 본격적으로 도입시 온실가스를 상당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에서도 전기 및 수소동력 수집·운반차량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https://www.lifeandgrabhy.eu/sites/default/files/LifeNGrab%20Hy_HECTOR%20300321%20%281%29_0.pdf
<https://www.nweurope.eu/projects/project-search/hector-hydrogen-waste-collection-vehicles-in-north-west-europe/>

③ 독일 FAUN사, 수소동력 수집·운반차량 BluePower

- 독일의 FAUN사에서 수소전기로 구동하는 10톤급 폐기물 수집·운반차량과 청소차를 생산
 -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에서 50만 유로(약 7억원) 자금 지원받아 개발
- 해당 차량은 수소연료전지와 전기 배터리의 조합으로 구동, 최대 560km 주행 가능하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코닉 모델, 연료전지 시스템은 커민스(Cummins)사의 시스템 사용
- 1대에 최대 6개의 수소탱크가 장착되며, 탱크당 수소 4kg 충전 가능
- 2018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선보였고, 2019년 시험주행으로 하루 2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
- 2020년 8월 브레멘에서 실제 테스트 진행, 같은 해 가을 첫 번째 고객 차량 인도
- 전기차량과 동일하게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며, 차고지, 충전소 등의 인프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



<FAUN사 수소동력 수집·운반차량>

출처 : <https://www.faun.com/en/products/alternative-drives/bluepower/>
<https://www.h2news.kr/news/article.html?no=8407>

3. 폐기물 처리 기술 및 시설

[기술지원팀]

①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

□ 관련 동향

-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전 세계 121개국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동맹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맞추어 2050년 탄소중립 선언('20.12)
 -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 탄소세 부과, 탄소 국경세 등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을 유도
- 이에, 배출된 CO₂를 흡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CCUS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선진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에서 CCUS기술을 탈탄소 주요 수단으로 제시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Storage, CCUS)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지중 등에 저장(Carbon Capture&Storage, CCS)하는 기술과 이산화탄소를 활용(Carbon Capture&Utilization, CCU)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 자원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말함

구분		정의 및 범위
C C S	포 집	연소 후 포집
		연소 공정 후 배출되는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연소 전 포집
	저 장	순산소 연소기술
		연료의 연소 전 가스화 혹은 부분산화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집
		연소 시 고순도 산소를 공급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지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
C C U	활 용	지중저장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적절한 심부 암층에 주입하여 저장
	활 용	해양저장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저에 분사하여 저장
C C U	활 용	생물학적 전환
		광합성 등 자연계의 탄소순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유기물질로 전환
C C U	활 용	화학적 전환
		기존 또는 새로운 화학 반응 및 공정기술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

<출처 :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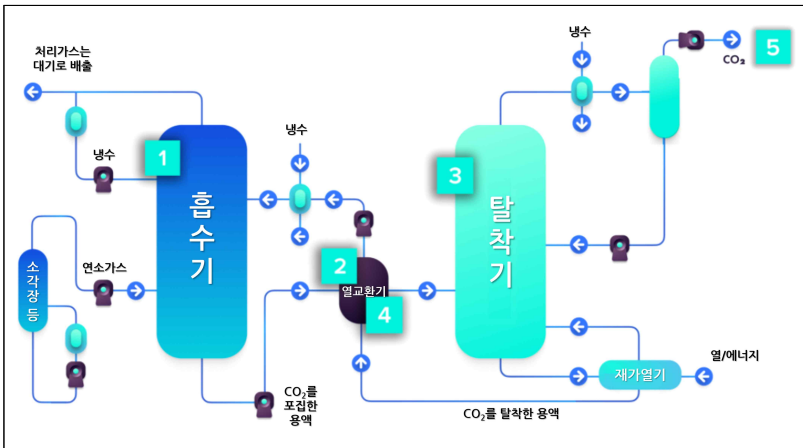
- 포집·저장기술(CCS)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에서 연소배가스 대규모 포집 실증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EU, 중국 등에서는 매체순환연소, 순산소연소 등의 연소 중 원천분리 기술 실증 연구를 추진 중
- 활용기술(CCU)은, 미국, 유럽에서 CO₂기반 다양한 제품·공정 원천연구가 활발히 추진 중이며, 일부 기술은 제품화 단계 진입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 기술 개발 사례

① 발전소 및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저장 기술(CCS기술)

- 기술명/회사명 : CDRMaxTM process / Carbon Clean(영국)
- 특징
 - 연소가스 내 CO₂ 농도가 3~25%(부피기준)일 경우 기술적용 가능
 - 포집된 CO₂는 순도 95~99%로 저장
 - 포집 및 저장 비용으로 CO₂톤당 40달러 소요(기존 포집기술 대비 43% 비용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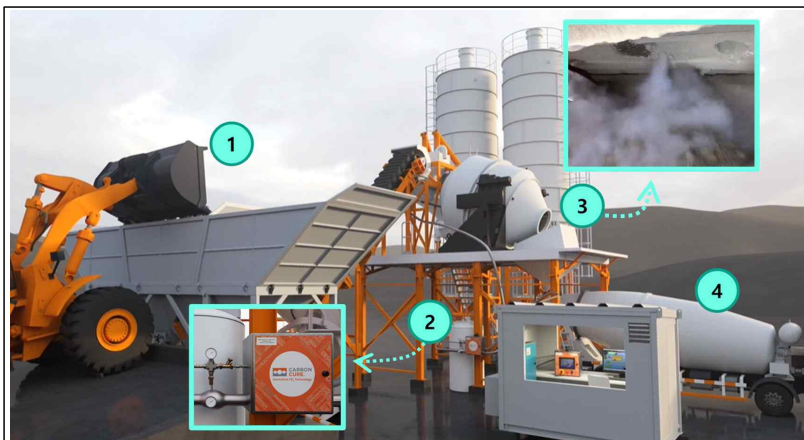


1. 흡수: 흡수기에서 용매를 사용하여 연소가스 내 CO₂ 포집
2. 가열: CO₂를 포집한 용매를 열교환기에서 부분적으로 가열
3. 분리: 탈착기에서 추가 가열을 통해 CO₂를 용매와 분리
4. 재생: CO₂를 분리한 용매는 재사용을 위해 열교환기를 통해 흡수기로 운반
5. 저장: 분리된 CO₂를 저장

[자료] <https://www.carbonclean.com/technology-licence>

② 이산화탄소(CO₂)의 화학적 전환을 이용한 콘크리트 생산 기술(CCU기술)

- 기술명/회사명 : CarbonCure Ready-Mix / CarbonCure Technologies(캐나다)
- 특징
 - 시멘트와 CO₂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CO₂를 탄산칼슘(CaCO₃)으로 전환하여 기존 콘크리트 대비 압축강도를 향상시킨 기술(시멘트 사용량 평균 3~6% 절감)
 - 해당 기술로 콘크리트 1m³ 제작 시 대기중으로 유입되는 CO₂를 평균 17kg 저감



1. 콘크리트 제작을 위한 시멘트 주입
2. 시멘트 비율에 맞추어 CO₂ 주입
3. 시멘트와 물 혼합 시, CO₂를 주입하면 화학적반응*을 통해 탄산칼슘이 생성
4. CaCO₃가 함유된 콘크리트를 운반 차량에 적재 및 건축 자재로서 활용

* CO₂가 물과 만나면 H₂CO₃로 수화됨. 이는 CO₃²⁻ 등으로 이온화되어 시멘트 내 칼슘이온과 반응하여 탄산칼슘 광물 생성

[자료] <https://www.carboncure.com/ready-mix/>
https://www.carboncure.com/resources/?_audience=end-users

4.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동향

[분리배출팀]

① 이스라엘, 보증금제를 대형 음료용기까지 확대 시행

- 이스라엘 환경보호부(The Minister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2001년부터 음료 용기 보증금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보증금 대상은 100ml이상 최대 1L 용기로 1.5L 이상의 대형 음료 용기는 제외되었음
- 그러나, 대형 용기가 이스라엘의 전체 음료용기 발생량의 75%를 차지하고, 음료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보증금제도의 재활용 목표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2021년 12월 1일부터 대형 용기까지 보증금 대상을 확대 시행하게 됨

자료: https://www.gov.il/en/departments/news/deposite_2021

- 보증금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연간 약 10억개의 소형용기뿐만 아니라, 약 7억 5천만 개의 대형 용기가 보증금제 적용대상이 되며 보증금액은 0.3ILS(USD\$ 0.08)

○ 음료용기 보증금제 주요내용

- 보증금대상: 보증금라벨이 부착된 PET, 금속, 유리 재질의 음료용기
- 소비자는 1일 최대 50개 반환 가능
- 식료품, 편의점 등 음료 용기를 판매하는 28㎡ 이상의 사업체는 음료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구매처와 반환처는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
- 보증금 지급 거부, 빈용기 수령 거부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소비자위원회를 운영



<보증금 대상 표시>

자료: https://www.gov.il/en/Departments/General/lp_bottle_deposit_expansion

② 싱가포르, Recycle Right 2022 캠페인 시행

- 싱가포르 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은 지난 1월 14일부터 「Recycle Right 2022」 캠페인을 시작하며, 가정에서 재활용폐기물 배출함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해야한다고 강조함
- 싱가포르는 재활용폐기물 배출함에 종이, 플라스틱, 유리 및 금속 4가지 유형의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하고 있음(single-stream방식)
- ※재활용가능품목 여부는 <https://www.cgs.gov.sg/recyclerightcampaign>에서 확인가능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재활용 폐기물 배출함 내용물의 약 40%는 재활용할 수 없는 품목이거나 음식물에 의한 오염으로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함

* 2021년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캠페인 시행 전인 2018년과 비교하여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Recycle Right 캠페인은 국민들이 재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년부터 진행한 캠페인으로, 캠페인을 통해 분리배출 라벨을 제작하였으며, 올해는 새로운 재활용 마스코트 “Bloobin”을 소개하며 분리배출 교육프로그램 안내에 활용함



<분리배출 안내 라벨>

- 교육프로그램은 올바른 재활용 습관 향상을 위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전자 활동책 발간, 고학년 학생을 위한 전자 게임 개발을 통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 교육기관 간 챌린지 「Ready, Set, Recycle」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직접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NEA는 지역 공공 폐기물 수집업체와 협력하여 2022년, 각 가구에 재활용 배출함을 배포할 계획이며, Bukit Batok, Bedok South 및 Upper Changi 지역 일부에서는 투명 재활용 배출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분리배출함이 투명하여 배출품목이 확인될 경우, 더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사업 진행



<투명한 분리배출함>

자료: <https://www.nea.gov.sg/media/news/news/index/three-in-five-households-recycled-regularly-in-2021-singaporeans-are-encouraged-to-recycle-more-and-recycle-right>

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노력

[음식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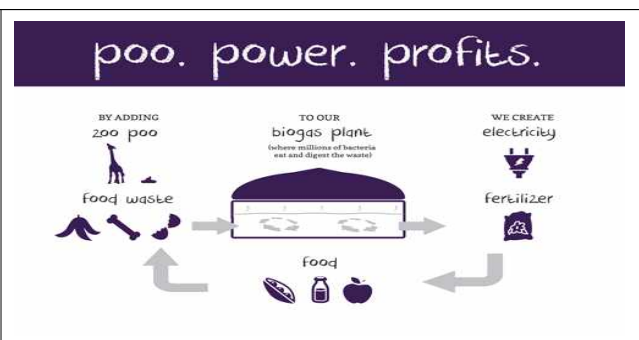
① (캐나다) 음식물류폐기물과 동물원 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 캐나다의 ZooShare 바이오가스 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12월 캐나다 최초 동물원 기반의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2021년 4월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2021년 8월, 토론토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가스화를 위해 ZooShare와 토론토 동물원, Loblaw(캐나다 최대 소매유통사), EnerFORGE(에너지사)가 협력한 프로젝트를 시작함
- 본 프로젝트는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연간 2,000톤의 분뇨와 토론토 지역의 마트,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연간 15,0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약 25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생산함으로서 연간 20,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줄이고, 처리 후 남은 부산물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소개 영상 : <https://zooshare.ca/media/virtual-tour/>

< Zooshare 바이오가스 프로젝트 개요 >

플랜트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 ZooShare, EnerFORGE - 운영 : EnerFORGE - 운영시간 : 24시간/일, 주 7일 - 자금조달 : 조합원 지원, 캐나다 정부의 저탄소 경제기금 - 수익원 : ①전기 생산 및 판매 ②쓰레기 수거 수수료 ③비료 판매
처리량	분뇨 2,000톤, 음식물쓰레기 15,000톤
전력생산량	370만kwh/년(정격용량 : 500kW)
비료생산량	1,080m ² /년
소재지	1749A Meadowvale Rd, Scarborough, ON M1B 5W8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위치



출처 :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zooshare-biogas-project-goes-live-first-of-its-kind-in-canada-831018876.html>
<https://zooshare.ca/about-zooshare/>

② [아일랜드]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 식품 유통기한 확인 강조

- 아일랜드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STOP FOOD WASTE DAY)’을 맞이하여 가정에서의 식품 유통기한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일랜드 소비자들이 식품을 낭비하는 주된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유통기한 내 음식을 소비하거나 냉동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큰 조치임을 강조
- 또한, STOP FOOD WASTE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기한을 활용하는 방법, 안전하게 냉동하는 방법, 식품 별 관리방법 등 음식물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함
 - * <https://stopfoodwaste.ie/storage-cooking/storage/stop-food-waste-day-make-use-by-dates-work-for-you>
-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가정에서 발생함
- 이에 아일랜드는 최근 발표한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2021.11)을 통해 2030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50%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Food Vision 2030」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 식품로스 및 폐기물 방지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 <https://www.gov.ie/en/press-release/71e22-minister-mcconologue-welcomes-stop-food-waste-day-2022/>